

【 P1-14 】

창원·김해 지역 초등학생의 쌀음식에 대한 기호도·지식 및 인식 조사

윤현숙, 이미자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해 신어초등학교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ence, Knowledge, Perception for Rice Food in Changwon and Gimhae City

Hyun-Sook Yoon, Mi-J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imhae Shino elementary school.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주식인 밥을 대체하는 fast food를 비롯한 각종 외래 식문화에 밀려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수입식품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쌀 소비의 감소는 밥중심 식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서구형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1985년 이후 순환기계질환, 악성신생물(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발병이 점차 증가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식생활의 간편화와 서구화로 인해 멀어지고 있는 쌀음식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치관을 증진시켜 전통적인 밥중심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학생 1,180명(남학생 630명, 여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밥에 대한 인식, 쌀음식 기호도, 쌀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등을 설문 조사하고,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1.7%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15.5%이었으며, 1일 식사횟수는 '세끼'가 74.8%이었고, '두끼'가 21%로 나타났다. 91.2%의 학생이 밥이 빵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빵보다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9.1%이었다. 밥보다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건강에 좋으므로' 61.2%, '매일 먹는 주식이므로' 26.4%로 나타났고, 쌀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5점 만점에 일품식(4.27), 음료류(4.26)가 높았고 다음이 간식류(3.72), 편의식(3.61), 밥류(3.44)였으며 떡류(3.33)와 죽류(3.27)는 낮게 나타났다. 기호도가 4점 이상 높은 것으로 밥류에서는 쌀밥(4.29), 일품식에서는 김치볶음밥(4.56), 볶음밥(4.55), 비빔밥(4.45), 오므라이스(4.44), 김밥(4.42), 떡국(4.33), 카레라이스(4.30), 자장밥(4.28), 떡만두국(4.24)이었고, 편의식에서는 삼각김밥(4.26), 떡류에서는 송편(4.48), 인절미(4.18), 간식류에서는 떡볶이(4.71), 떡꼬치구이(4.46), 쌀과자(4.24), 음료류에서는 식혜(4.61), 미수가루(4.28)이었다. 쌀에 대한 지식점수는 20점 만점에 12.8점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쌀의 지식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13.12점)이 남학생(12.53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쌀에 대한 가치관 평가는 평균점수가 50점 만점에 37.3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쌀에 대한 지식은 쌀에 대한 가치관 ($r=0.365$, $p<0.001$), 쌀음식의 기호도($r=0.132$, $p<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쌀에 대한 가치관은 쌀음식의 기호도($r=0.409$, $p<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이 밥이 건강에 좋으며 밥중심 식생활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고유한 전통식

생활이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떡볶이, 식혜, 김치볶음밥, 볶음밥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일품식과 송편, 인절미, 떡꼬치구이, 미수가루, 쌀과자 등을 좋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쌀에 대한 지식, 기호도, 가치관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았으므로 쌀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 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하여 쌀의 영양성분, 기능성, 밥중심 식생활의 우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쌀음식을 좋아하여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 쌀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떡만들기 체험, 쌀음식 관련 문화행사, 쌀요리 경연대회 등 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쌀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쌀음식의 개발과 조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